

## I. 들어가는 말

현대 선교학은 지난 40여년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측면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측면들, 이를테면 선교전략과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유럽 지역에서는 보다 이론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 40여년동안 선교학은 북미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로 문화인류학이나, 사회과학 또는 선교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같은 선교현장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선교전략 개발에 몰두해왔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특히 1974년 북음주의 진영의 로잔(Lausanne)대회에서 ‘세계복음화’가 선교의 중요한 목표임을 재확인하면서 현대선교의 동향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보다 실제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게 되었고, 세계복음화를 성취함에 있어서 로잔대회에서 미국의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Winter)가 주창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선교운동이 현대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범세계 교회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확산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마닐라(Manila : 제II 로잔) 대회에서 미국의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Luis Bush)가 10/40창문(Window) 개념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그의 집합적 접근단위로써 창문(window)개념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적용되면서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은 20세기 후반부에 선교학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Issue)이 되었고,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현대선교는 21세기의 ‘남은과업’으로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의 역량을 모아 10/40창문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호응해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안에서도 앞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1993년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Adopt A People Project) 본부를 출범시키게 되었고 비로소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AAP 발족은 적어도 선교단체와 교단선교부들, 즉 한국선교가 미전도 종족을 최우선적인 사역 대상으로 인식을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sup>2)</sup>고 할 수 있다.

---

1) 이태웅, “세계 비전과 주요 선교 동향,” 『현대 선교학의 동향』, 문상철, 안점식 편집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7), 84.

21세기의 선교전략적 측면에서 10/40창문 지역 개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랄프 윈터의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이 1970년대 후반부에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1980년대의 세계의 지역교회들이나 교단선교부, 그리고 해외 선교단체들조차도 선교전략에 있어서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1989년 마닐라(Manila) 대회에서 제시된 것이 루이스 부시의 10/40창문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성경적 논리에 근거를 둔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개념을 이 시대의 정황을 고려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현재 세계 선교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sup>3)</sup>

한국에서는 지난 2006년 7월에 ‘남은과업 완수운동(FTT운동 : Finishing The Task Movement)’이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FTT Korea를 통해서 다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강력히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한 남은 과업 완수라는 측면에서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이슈(Issue)가 전 세계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1세기의 시대적 과제이자, 이 시대의 가장 전략적인 선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역이 한국에서 1993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한국의 지역교회, 신학교, 선교단체나 교단선교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고, 21세기의 시대적 과제이자, 이 시대의 남은 과업인 미전도 종족 선교가 대한 예수교 성결 교단을 비롯한 한국선교<sup>5)</sup>를 통하여 활발하게 실행되어짐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어지며,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 선교가 이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필자는 첫째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과 선교전략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두 번째로는, 10/40창문(Window) 개념과 미전도 종족 선교지 상황을

2)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한국 세계선교 행정과 정책 자료집』, 강승삼 편집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4), 69.

3)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69.

4) <http://www.upma21.com> (2012년 6월 27일)

5) 한국의 지역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교단선교부, 해외선교사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살펴본 후에, 세 번째로는,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의 현황과 과제, 및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혀보려고 한다.

## II.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과 선교전략의 역사적 고찰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세기 후반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의 태동과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한 핵심적인 선교운동과 그에 따른 중요한 선교전략들만을 다루도록 한다.

### 1. 1974년 로잔(Lausanne)대회

20세기 후반부에 있어서 선교 전략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는 미국의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Winter) 박사이다. 그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개최한 1974년 로잔(Lausanne)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운동을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24,000여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16,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이것이 영국의 데이빌 바렛(David Barrett)에 의해 12,000으로 축소되었다.

윈터는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종족의 토착교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종족”이라고 개념을 밝히면서 그는 현대 선교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후에 그는 미전도 종족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전도 종족에 대해 설명하기를 “어떤 집단의 개념으로서 누구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효과적인 복음전달을 해 본적이 없는 집단 즉, 그 집단에 의한 선교학적 돌파(Missiological breakthrough)가 아직 한 번도 일어나 본적이 없는 집단”<sup>6)</sup>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가 말하는 선교학적 돌파란 전체 구성원들을 새롭게 하고 전체 사회를 변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생존 가능한 토착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가능하며, 외국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토착적이고, 종족 내의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교제권

6) 랄프 윈터, “전방개척선교로의 전환,” 『K W M A』, 한국세계선교협의회편집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5), 3.

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 운동이다. 윈터는 이와 같은 토착교회 개척 운동을 성취하는 것을 선교학적 돌파라고 말한다.<sup>7)</sup> 더 나아가 그는 모든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선교학적 돌파’를 얻는 과업은 마쳐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윈터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플러 신학교 근처에 US 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US 센터 안에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선교목표로 설정하는 70여 개의 미국의 선교단체를 영입하여 공동 전선으로 정보와 전략, 선교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협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sup>8)</sup>

1980년 영국에서 열린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윈터가 주장한 중차대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적 도전에 복음주의 선교는 동의, 호응을 하였고,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공식적으로 체계화 되면서 ‘2000년도까지 모든 종족에게 하나의 교회’라는 표어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윈터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 세계적 선교운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모든 종족에게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대위임령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가능하고도 합당한 접근이며, 완수할 수 있는 과업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태복음 28:19-20)는 예수님의 위임령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보다 더 좋은 해석은 없다고 윈터는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미전도 종족 선교가 마침내 마감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14절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과 현실적으로는 1974년도에 로잔에서 미전도 종족이 12,000개의 종족으로 추산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8,000개의 미전도 종족으로 통계되어지면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헌신하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윈터 박사는 2009년 5월 20일에 소천 하였다.

그런데 윈터 박사의 주장처럼 미전도 종족은 더욱 감소하여 2019년 현재 여호수아 프로젝트 목록에 의하면 6,648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통계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미전도 종족들의 90% 이상이 10/40창문(Window)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7) Ralph D. Winter & Steven C. Hawthorne,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서울: 예수전도단, 2000), 287.

8)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152.

## 2. 1989년 마닐라(Manila)대회

1989년 마닐라(Manila)에서 개최된 로잔 II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미국의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Louis Bush)는 미전도 종족의 전략적 접근단위로서 10/40창문(Window) 개념을 발표하였다. 이 개념을 근거로 해서 대회 의장이었던 토마스 왕(Thomas Wang)과 루이스 부시가 중심이 되어 ‘AD 2000 운동(AD 2000 and Beyond Movement)’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복음주의 진영의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었다.

AD 2000 운동의 목표는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적어도 한 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Gospel for every person by AD 2000)”이었다. 이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로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 되도록 하는 것과 둘째로 모든 미전도 종족과 도시에 선교마인드를 가진 교회를 설립하는 것, 셋째로 세계복음화라는 동일한 비전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이 협력 체제를 갖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당시 진행 중인 세계복음화 운동들과 기구들을 강화하고 보충하도록 하는 일 등이었다.<sup>9)</sup>

이러한 AD 2000 운동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는 ‘국가별 복음화 전략회의(National consultation for national evangelization)’의 구성과 ‘범세계적 조직망(Global network)’의 구축이었다. ‘국가별 복음화 전략회의’란 국가 단위의 협력된 선교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자국 기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 2000년까지의 세계복음화 비전을 나누고 자국 복음화의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사역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 세계를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조직망(regional network)’을 구성하고 각 지역 내 국가마다 ‘국내 조직망(national network)’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14개의 공동관심 그룹은 도시 선교 위원회, 문서선교위원회, 자료조사연구위원회, 목회자위원회, 기도위원회, 방송선교위원회, 교회개척선교위원회, 전도와 제자화위원회, 미전도종족선교위원회, 여성위원회, 선교인력개발위원회, 교단지도자위원회, 평신도지도자위원회 등이었다.<sup>10)</sup>

AD 2000 운동은 그 이름에 맞게 2001년 1월에 끝났지만, 1990년대 복음주의 진영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핵심적인 선교전략 운동으로 그 영향력은 현재 21세기까지 미치고 있다.

## 3. 비거주 선교전략 (Nonresidential Mission)

9) 이현모, 『선교학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277.

10) 이현모, 『선교학개론』, 278.

비거주 선교 전략은 랄프 윈터의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 선교지도자들의 반응으로, 데이빗 게리슨(David Garrison)이 198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Ⅱ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비거주 선교사 개념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 세계에 있는 1/4정도의 인구가 종교, 정치, 사회, 문화적 장벽 때문에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선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살고 있어서 창의적인 선교 전략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거주 선교전략이 필요하며, 비거주 선교사란 전임 해외 선교사로서 하나의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에 그 사역의 우선권을 두며, 다른 선교 기관들과의 중복이나 차이를 피하여 사역하는 자이다. 또한 비거주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법적인 거주 금지나 감시로 인하여 사역에 큰 제약받기 때문에 선교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 그곳을 거점으로 비거주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관심 있는 그 지방이나 다른 지방의 개인, 단체, 교단, 또는 선교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하나의 조직망을 구성한다는 것이다.<sup>11)</sup> 그리하여 비거주 선교 전략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하여 포괄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기도와 성경번역, 방송선교, 선교사의 배치전략이다. 게리슨에 의하면 이러한 비거주 선교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곳은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권과 사회주의권의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과 동아시아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지역들이다.

#### 4.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Adopt A People Project)

랄프윈터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전략으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하나의 미전도 종족을 맡아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이란 지역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연합적으로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 중에서 특정한 한 종족을 영적인 측면에서 입양하여서 이 종족이 복음화 되어질 때까지 선교의 책임과 지원을 다 하자는 운동이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교회들이 각 나라의 종족입양 운동 본부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의 프로파일을 받고, 기도와 정보, 현지방문들을 통하여서 입양을 결정하게 된다. 입양을 결정하면, 입양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 입양한 종족을 위하여 집중적인 중보기도사역을 하며, 현지에 장기선교사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지원을 하고, 구제나 사회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 종족에게 지역교회의 선교자원을 집중시키자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특수한 선교전략이다.

11) David Garrison, *The Nonresidential Missionary*, 김창영, 조은화 옮김, 『비거주 선교사』(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27.

## 5.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Joshua Project 2000)

이 운동은 2000년까지 인구 1만 명 이상의 모든 종족에게 각각 한 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협력하자는 선교전략이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전 세계 교회가 10/40창문 지역을 향해 집중적으로 증보기도 함으로써 10/40창문 지역에 존재하는 신들을 대적하고 결박하자는 연합적인 기도 운동이었다. 각 지역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10/40창문 내의 한 종족 혹은 한 도시를 입양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이방 신의 강한 진(stronghold)을 파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sup>12)</sup>

이 운동은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전도 종족선교를 여호수아 프로젝트 I, II 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최근에 와서 단기선교나 선교정탐에서 땅을 밟고 기도하며, 그 선교지역을 위한 증보기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전략적 개념을 잘 적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6. 2010년 케이프타운(Cape Town) 대회

2010년 10월 17-25일까지 제3차 로잔대회(198개국, 4,200명 참석)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선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선교의 방향과 흐름에 대해 논의 하였다. 그 모임의 결과 채택된 것이 바로 케이프 타운(Cape Town)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IV장에서 ‘미전도 종족과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 아직도 그러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수천 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미전도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며 안타깝고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이들 가운데 토착교회가 없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려는 시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선교단체가 없어서 많은 종족들이 선교에서 소외된 종족들이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한다. 현재 아주 미미한 퍼센트의 교회 자원들(인적, 물질적)이 가장 소외된 미전도 종족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예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세상에 미전도 종족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과 영적으로 불의한 상태

12)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72.

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침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이라고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 대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그들 가운데 복음을 나누려는 긴박성의 결핍을 회개한다.

(2)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깊이 참여하고 성육신적 사랑과 희생적 봉사정신을 갖고 그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그들을 일깨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의 말씀과 행위로 소통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다.

(3)성경은 복음전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경에 대한 빈곤의 근절을 막아야만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직도 모국어로 갖고 있지 않은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서두른다.

②성경의 메시지가 구전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들을 훈련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우리는 사역과 연합과 성숙함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사로잡는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참신한 신념을 열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목회자와 교사로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을 찾아내어 격려하고 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소수의 유급 전문직 사역자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제한하는 성직주의를 거부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분명한 은사를 갖고 있는 많은 남녀들이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교단구조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가운데 그들의 은사를 발휘하게 한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룬다는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으며 구비되도록 해야 한다.

②우리는 현재 종기와 펜과 연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므로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연구하는 디지털 방식을 권장하여 사람들의 성경을 읽고 쓰는 능력을 촉진해야만 한다.

(5)우리는 복음 자체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선교의 원천이며 내용이고 권위인 까닭에 우리의 모든 선교사역의 통합적 영역의 핵심에 있는 복음전도를 유지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구원사역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 선포가 되어야만 한다.<sup>13)</sup>

이와 같이 케이프타운 대회는 미전도 종족과 선교를 한층 더 강화하여 강력하게 부각시켜준 대회였다.

위에서 언급한 운동들은 미전도 종족을 위한 20세기 후반부에 시작해서 전 세계의 복음주의 진영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방향을 모은 핵심적인 선교운동과 선교전략들이며, 21세기의 현재까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 Ⅲ. 10/40 창문(Window) 개념과 미전도 종족 선교지 상황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사역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10/40창문 개념과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의 선교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1. 10/40창문(Window) 개념과 유사권역별(Affinity Blocs) 창문개념의 발전을 통한 미전도 종족 선교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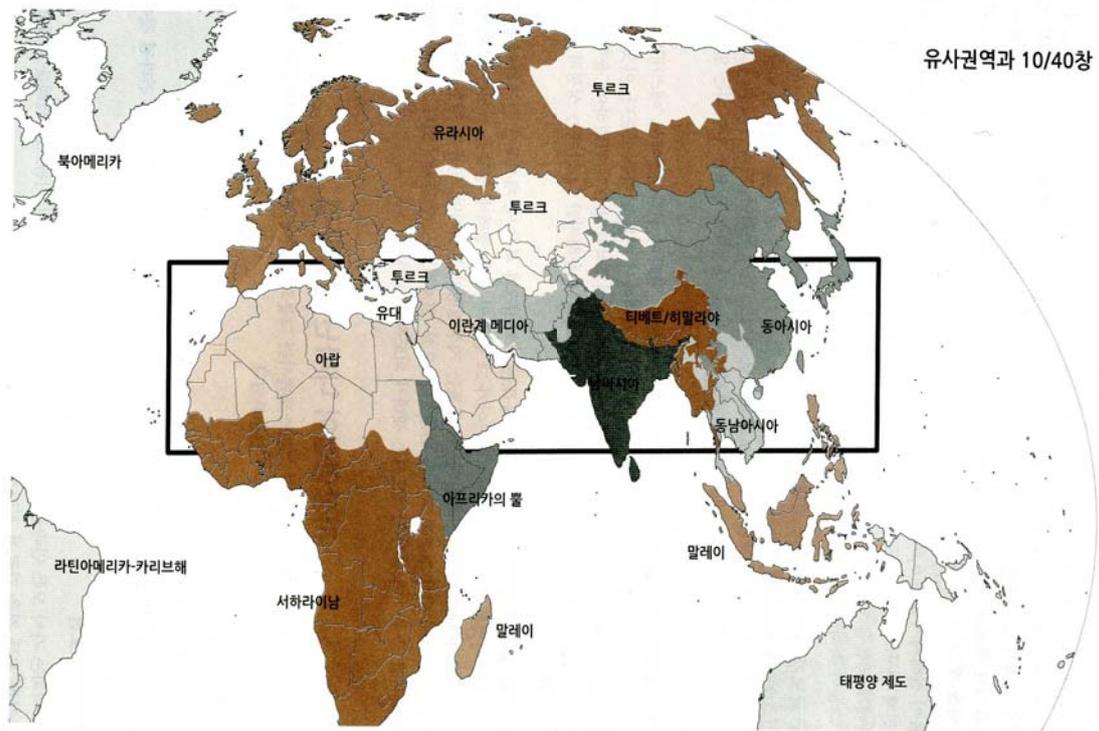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0/40창문 개념은 미국의 선교 학자 루이스 부시(Luis Bush)가 1989년 마닐라(Manila) 대회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개념은 미전도 종족 선교지 상황을 집합적 접근 단위로써 창문(window) 개념으로 적용한 것이다. 즉, 이 지역은 지도상으로 볼 때, 서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전 세계의 인구의 60%가 살고 있고, 미전도 종족 9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통계자료 분석이다.

13) 김성욱, "로잔대회의 역사와 평가 : 남아공대회를 중심으로," KMQ (2014년 여름호) :55-56.

이러한 10/40창문 지역을 대륙별로 분류한다면 지구촌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북부아프리카 지역, 서아시아,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인도차이나반도), 중국 소수민족 집단, 시베리아, 북한을 포함하는 10/40창 벨트로써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sup>14)</sup>

\*아래의 지도는 루이스 부시의 10/40창문 개념을 근거로 해서 2011년 제이슨 멘드릭(Jason Mandryk)의 'Operation World(세계기도정보)'에 의해서 제공된 것으로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은 다양한 핵심 집단이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현재 여호수아 프로젝트 목록에 의하면 전 세계 16,350개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은 6,648개의 종족으로 통계되어진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총 인구 수는 28억 4,000명이며 세계인구의 41.1%에 달한다.<sup>15)</sup>

### 10/40창문(Window) 지역



14)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72.

15) Jason Mandryk, *Operation World*, 조이선교회 옮김, 『세계기도정보』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11), 72.

이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10/40창 지역이며 11개 유사권역(Affinity Blocs)으로 나눌 수 있다. 유사권역이란 문화, 언어, 지형, 역사 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11개 유사권역의 종족 수와 인구 수에 대한 통계이다.<sup>16)</sup>

유사권역	종족 수			인구 수		
	계	미전도종족(개)	미전도율(%)	계(100만)	미전도종족(100만 명)	미전도율(%)
아랍	573	396	64.4	332.1	225.5	67.9
동아시아	454	197	43.4	1,518.4	305.6	20.1
아프리카의 볼	160	60	37.5	104.3	23.7	22.7
이란계 메디아	273	250	91.6	154.3	153.4	99.4
유대	181	176	97.2	14.8	14.4	97.3
말레이	1,018	278	27.3	358.6	181.5	50.6
남아시아*	3,718	3,293	88.6	1,553.9	1,420.2	91.4
동남아시아	615	452	73.5	226.6	135.1	59.6
사하라이남	2,994	570	19.0	693.8	133.2	19.2
티베트/히말라야	770	429	55.7	95.8	67.4	70.4
투르크	311	254	81.7	170.7	166.7	97.7
나머지	5,283	320	6.1	1,685.0	13.0	0.8

\* 남아시아 유사권역은 카스트에 따른 하위 집단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종교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 전통적이고 세계적인 강력한 종교 집단이 중점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적대적인 토착 종교의 장벽이 높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은 과거 기독교 식민지에 대한 민족주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공산주의의 정치적 체제와 종족간의 전쟁이나 종교 전쟁 때문에 공식적인 선교 활동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문화의 복잡성과 언어의 이질성, 사회 구조의 다변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한계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에는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 가장 학대받는 아이들, 그리고 세계 문맹인의 대부분과 유목민들 거의가 이 지역에 산다. 이곳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같은 질병들이 창궐하지만 대체로 검사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10/40창문 지역의 선교지 상황에 미전도 종족 90%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부시는 이러한 10/40창문 개념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할 것을 주장하였다.

16) Jason Mandryk, *Operation World*, 죠이선교회 옮김, 『세계기도정보』, 72.

루이스부시가 10/40창 지역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평범하지 않은 용어가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에 익숙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경시되었던 지역이 유례없는 주목을 받았으며, 수천 개의 교회가 그 지역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원 되었다. 수백 개의 선교 단체가 전략을 다시 세우고, 이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수많은 일꾼들이 동원 되었다. 영국의 WEC 같은 선교단체인 경우, 10/40창 지역에서의 진보가 1984년 34%에서 2000년대에는 70% 이상까지 증가하였다.<sup>17)</sup>

이러한 세계선교 접근 단위으로써 루이스 부시의 10/40창 개념은 후에 지문화적(Geo-Cultural) 및 거대 종족 그룹을 범주화하여 대상화하는 여러 권역별 창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지난 2007년 영국의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은 미국세계선교센터(USCWM)의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종족리스트에 근거하여 이를 재편성하고 15개의 권역으로 만들었다. 이를 다시 주요한 종족그룹별로 분류해서 말레이계 종족, 티베트계종족, 소말리아계 종족 등 251개의 종족단(People Clusters)으로 그룹화 시켰다. 패트릭 존스톤이 제안한 15개의 권역은 동아시아권, 남아시아권(인도 아리안문화권), 유라시아권, 라틴-코카서스 아메리카권, 사하라 종속 아프리카권, 말레이권, 아랍권, 동남아시아권, 북아프리카권, 투르크권, 인도-이란권, 아프리카 초승달권, 티베트 및 히말라야권, 유대권, 태평양섬주민권이다.<sup>18)</sup>

2011년도에는 제이슨 멘드릭(Jason Mandryk)이 패트릭 존스톤의 15개의 권역을 근거로 해서 다시 11개의 유사권역으로 분류해서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를 통해 발표하였다. 멘드릭에 의하면 이것은 하계 언어학 연구소의 에스놀로그, 여호수아 프로젝트 목록,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 그 밖에 여러 조사기관의 도움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한다. 11개의 유사권역은 아랍권, 동아시아권, 아프리카의 빨, 이란계메디아권, 유대권, 말레이권, 남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사하라이남권, 티베트/히말라야권, 투르크권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여년(1993-현재까지) 동안 미전도 종족 선교사역을 해오면서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가 서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10/40창문 개념을 오히려 한국형으로 변화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CAS전략이다. 이것은 지역과 도시, 종족, 그리고 사역을 연계시켜서 이를 통한 전략선교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여러 선교단체에서는 10/40창문

17) Patrick Johnstone & Jason Mandryk, *Operation World*. 조이선교회 옮김, 『세계기도정보』(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2), 41.

18) <http://www.upma21.com> (2012년 6월 27일)

개념을 더욱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변형시켜서 투르크창, 알타이창, 아랍벨트창 등을 창안하여 유사권역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면서 이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9)</sup>

또한 북위 10도와 남위 10도 사이의 이중 10창문(Double 10 Window) 개념 이외에 국내에서 발달한 선교전략 단위로서의 창문들은 알타이 창문(Altaic Window), 투르크 창문(Turkic Window), 페르시아 창문(Persian Window), 시베리안 창문(Siberian Window), 카프카스 창문(Kafkas Window), 북부 인도창문(Northern India Window)등이다.<sup>20)</sup>

이러한 창문 개념을 사용해서 한국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실행할 경우에 문화적, 역사적, 인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알타이 창(Altaic Window)이나 투르크 창(Turkic Window), 시베리아 창(Siberian Window) 등을 집중하여 사역하고 섬기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는 페르시아 창문(Persian Window)이나 카프카스 창문(Kafkas Window)<sup>21)</sup> 등과 같이 서구 교회의 선교적 접근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과 창문을 섬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창문을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나머지 종족들은 미국 교회나 혹은 아프리카 교회 등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게 맡기는 것이 경쟁이나 중복 투자를 하지 않는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최우선 입양종족 혹은 최우선 선교대상 종족 및 창문 개념이다.<sup>22)</sup>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알타이 창(Altaic Window)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비단길을 따라 동구 유럽에서 부터 북한에 이르는 거대한 벨트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한국과 역사적, 인종적 친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정도 현지어를 배우고 익히면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 쉬운 터기어, 우즈벱어, 투르크멘어, 우이구르어, 타타르어, 칼묵어, 몽골어 등의 이러한 알타이어족 집단은 한국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이다.<sup>23)</sup>

다음으로 한국선교의 최우선 선교대상 창문 지역으로는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 창문(Minority Window) 지역이다. 중국은 현재 약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

19) <http://www.upma21.com> (2012년 6월 27일)

20)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71.

21) 카스피 해 서쪽 카프카스 산맥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소련 남시베리아 남단 카프카스 지역이다. 남쪽으로는 이슬람 문화권, 북쪽은 슬라브 기독교 정교 문화권, 동쪽은 중앙아시아 투르크 유목 문화권 사이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

22)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73.

23)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73.

중국의 한족(漢族)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 문제는 큰 단위로 55개의 종족, 세분화된 단위로는 90여개에 이르는 우이구르, 티베트 종족 등과 같은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들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들 수 있겠다.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인도차이나 창문은 거대한 인구를 가진 집단으로 이 지역 또한 한국선교의 중요한 선교 대상이다. 베트남 민족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문종족으로 이 종족집단이 복음화 될 때 주변 국가 및 다른 종족들에게 대한 영적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sup>24)</sup>

## 2. 10/40창문(Window) 지역 안에 있는 아시아(8개의 유사권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지 상황

한국선교가 10/40창문 지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시아가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 남아있는 선교적 과제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10/40창문 지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6,000여개 가운데 85%인 5,150개 종족이 아시아에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0/40창문 지역 안에 있는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은 언어, 인종, 문화, 지리, 역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8개의 유사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25)</sup>

유사권역	종족수	거대종족군
아랍	19	이집트, 레반트 아랍, 마그레브 아랍, 아라비아 아랍, 수단 아랍
이란계 미디어	10	페르시아, 파슈툰, 쿠르드, 발로흐, 타지크
남아시아	27	힌두, 벵골, 우르두 무슬림, 라자스탄, 자트, 마라타-콘카니, 타밀
투르크	9	투르크,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위구르, 우랄 시베리아, 투르크멘, 키르기스
동아시아	7	중국, 일본, 후이, 만주, 몽골
티베트/히말라야	14	버마, 서중국/롤로, 티베트, 남히말라야, 쿠키-친-나가
동남아시아	15	베트남, 타이(Thai), 몬-크메르, 찰, 미아오/라오스몽, 타이(Tai)
말레이	33	자바, 중앙필리핀, 순다베다위, 말레이, 마다가스카르, 마두라, 부기-마카사르

이 8개의 유사권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을

24) 최바울, “세계 선교의 전략적 접근 단위 : 창문(Windows) 개념의 개발과 선교전략,” 73.

25) Jason Mandryk, *Operation World*, 72.

살펴보도록 한다.<sup>26)</sup>

1) **아랍권 지역** : 이 지역의 인구는 1억 1,200만 명이고 166개 종족이 있다. 중동아시아의 아랍국가 12개국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은 교회가 소규모여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점점 더 과격해지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압제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 현재 이 지역에서 인터넷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사역 도구이다. 복음 전파 기회, 변증, 성경공부, 제자훈련, 예배, 교제와 같이 무궁무진하다. 인터넷을 통해 복음이 아랍권에 끼칠 영향은 앞으로도 대단할 것이다.

\* 현재 아랍어를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일간 방송인 위성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거의 모든 집이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함께 위성 방송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장벽이 무너지고 전례 없던 열매를 맺고 있다.

\* 라디오 방송 역시 해외를 넘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으며 효과적인 후속 사역을 제공 받고 있다.

\* <예수 : Jesus>,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 Passion of Christ>와 같은 기독교 영화는 놀라운 수준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 외국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랍 땅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이들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은 모든 면에서 작지만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에서부터 사업가, 교육가, 의사와 같이 사회적 엘리트 계층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2) **이란계 미디어** : 이 지역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지역에 걸쳐있다. 인구는 1억 4,600만 명이며 213개 종족이 있다. 주요 종족군은 페르시아족(4,600만 명), 파슈툰족(4,800만 명), 쿠르드족(2,800만 명), 발로흐족(1,000만 명)이다. \* 이슬람권인 이 지역은 전쟁, 핍박, 가난 때문에 수백만 명이 이 땅을 떠났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다.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지만 여전히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이 지역에서 페르시아족은 기독교 방송과 위성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사역과 기독교 문서에 팔목할 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종족군은 모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거의 없고 이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아직은 반응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다.

26) Jason Mandryk의 “Operation World 『세계기도정보』”가 분석하여 제공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남아시아 :** 8개 유사권역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 12억 명의 인구, 거의 800개에 달하는 인종 언어학적 종족과 3,400개의 인종 문화적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힌두교권이다. 인도, 네팔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성이나 언어가 비슷하고 카스트 제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남아시아인의 주요 3개 종족은 인도-아리아족, 드라비다족, 전통 부족이다. 많은 집단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카스트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전통 부족과 달리트 계급)이거나 카스트 제도에서 계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지도층 계급과 중산층 계급과 같은 카스트의 상위 계급은 현재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다른 선교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4) 투르크 유사권역 :**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구 소련지역) 대부분을 거쳐 시베리아 북동부까지 뻗어 있다. 인구는 1억 4,900만 명이며 209개 종족이 있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투르크족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았으나, 터키 자체 내에서 소련이 쇠퇴한 후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방에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 이 지역에서 외국인 기독교인이 복음을 증거 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매우 세심하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가 능력을 펼칠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며, 이미 수백, 수천 개의 기회가 있다.

\* 현재 투르크족 사이에서 신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2010년도에 6만 명 이상으로 추정)는 대단하지 않다. 특히 이란에 있는 키르키스족, 카자흐족, 우즈베크족, 아제르바이잔족 가운데 기독교 신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투르크족 복음주의자 수는 투르크족 인구의 겨우 0.04% 정도다.

\* 현재 이 지역에서는 성경번역 선교, 문서선교, 라디오, 위성 텔레비전(특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투르크족, 아제르바이잔족, 중앙 아시아인을 위한), 영화 <예수 : Jesus>, 인터넷에 있는 기독 자료들을 통한 매체 투입이 계속 늘고 있다.

**5) 동아시아 유사권역 :** 이 지역에는 아시아의 15억의 인구가 있다. 동아시아에 있는 주요 종족군은 중국 한족(13억 명), 일본인(1억 2,700만 명), 한국인(7,400만 명)이다. 그중 현재 가장 역동적인 기독교인은 한국인과 대부분의 중국 본토인이며, 해외 중국 공동체도 활발하다. 비교적 반응이 약한 일본인, 중국 무슬림인 후이족, 만주족, 대만에 있는 많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6) 티베트/히말라야 유사권역 :** 이 지역은 히말라야, 중앙아시아, 인도북동부, 미얀

마, 중국에 걸쳐 있다. 이 지역에 있는 인구는 9,300만 명이며 762개 종족이 있다. 주요 종족군으로는 미얀마족(3,200만 명), 서중국/이족(2,100만 명), 남히말라야족(720만 명), 티베트족(710만 명), 쿠키-친-나가족(630만 명), 가로-트리푸리족(490만 명), 카렌족(480만 명)이다. 현재 인도 북동부, 미얀마, 중국 윈난성에 살고 있는 많은 종족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 강경한 티베트 불교인들이 대부분 중국 티베트, 부탄, 네팔 북부에 살고 있다. 이곳의 기독교 신자는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 사역 기회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가 필요하다.

\* 서중국/이족은 대부분 쓰촨 성, 윈난 성, 티베트에 살고 있다. 여전히 전통적인 민족종교를 실천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복음 증거에 대해 매우 혼합된 반응(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을 보이고 있다.

\* 남히말라야족은 인도와 네팔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힌두교와 불교가 지배적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 오랫동안 복음에 저항해 온 미얀마족은 2세기 동안 복음을 들었다. 현재 기독교인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족 가운데 많은 사람(특히 친족, 카렌족, 카친족)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

**7) 동남아시아 유사권역** : 이 지역에 있는 인구는 2억 1,600만 명이며 539개 종족이 있다. 주요 종족군으로는 베트남족(7,500만 명), 타이족(5,460만 명), 몬-크메르족(2,500만 명), 황족(1,880만 명), 미아오/몽족(1,070만 명)이다. 대부분 불교 신자거나 정령 숭배자며, 복음에 다양하게 반응한다. 베트남의 몽/몬타그나르족, 인도 카시족, 중국과 미얀마의 와족 등과 같은 몇몇 집단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또한 베트남족 사이에서 기독교인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 이지역의 타이족은 거의 200년간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반응이 미미하고 교회도 약하며, 정령 숭배와 불교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타이족 비율은 오랫동안 침체된 상태다.

\*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야오-미엔족, 미아오/몽족 등의 100여개 종족만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 라오스족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거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 종족이며, 라오스족은 아주 미미하다.

**8) 말레이족** : 이 지역에 있는 인구는 2억 3,260만 명이며 910개 종족이 있다. 주요 종족군으로는 자바족(8,760만 명), 중앙필리핀족(7,700만 명), 자바의 순다베다위족

(3,520만 명), 말레이족(2,390만 명), 마두라족(1,470만 명)이다. 필리핀인, 오세아니아인, 인도네시아 동부 종족, 마다가스카르인은 주로 기독교인이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중심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종족 대부분에서 기독교인은 매우 적다.

\*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로 약 4,800만 명이 거주하며, 바타크족과 니아스족에 기독교인이 많다. 그러나 아체족, 고론탈로족, 람퐁족, 플라유족, 미낭카바우족, 무시족, 오간족, 파세마족은 주로 무슬림이며 복음을 잘 접하지 못하고 있다.

\* 1억 4,000만 명이 사는 자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지만, 대도시 자카르타와 자바 구역에만 기독교 공동체가 눈에 띈다. 순다족과 마두라족은 미전도 종족이며 대부분 기독교 사역을 반대한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족은 2,400만 명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 소수 집단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을 고수하고 있다.

\* 현재 민다나오, 술라웨시 섬, 몰루카 제도의 무슬림은 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무슬림으로, 같은 종족군에서 기독교인과 함께 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40창문 지역에 있는 아시아(8개의 유사권역)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한국교회를 선교사명적 존재로 부르셨다(예성교단은 아시아의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해야만 한다).

## IV.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의 과제와 미래에 대한 전망

### 1.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의 역사 개관

지난 20여 년 동안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미전도 종족선교 운동을 태동기, 확산기, 발전기 등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1) 태동기(1993 - 1995) : AAP발족, GCOWE '95 대회

한국에서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1993년에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실행연합단체로서 한국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본부 : AAP(Adopt A People Project)가 당시 4개 교단과 7개 단체를 중심으로 연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서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2년 후, 1995년 'GCOWE '95(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대회는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확산될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국내 교계 지도자들과 주요 교단들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각 지역교회까지 소개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한국교회에서의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199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 **(2) 확산기(1996 - 2000) : 국내 지역교회 및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확산**

1996년 이후,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회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의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의 제2시기로 2000년도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전개되어진다. 1996년과 1997년의 미전도 종족 선교대회를 통한 목회자 동원, 미전도 종족 중보기도 운동, 미전도 종족 데이터 구축,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훈련(정탐훈련, 캠프 여호수아),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한 강의 및 세미나를 통한 지역교회 동원사역 등이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의 확산기라고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까지 확산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sup>27)</sup>

### **(3) 발전기(2001- 2019년 현재) : 선교현장과 연결되면서 나타난 도전과 반응**

21세기의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제3시기로 발전하게 된다. 이전의 두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미전도 종족 입양 이후 사역 문제와 선교현장이란 2가지 문제였다. 전자는 국내에서 그동안 미전도 종족을 입양한 지역교회의 입양 이후의 사역과 관련된 문제이고, 후자는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현장과 미전도 종족과의 상관관계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그동안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주로 서양선교사와 단체들이 조사한 서양선교사 현황 자료 및 미전도 종족 리스트에 근거하여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을 실행해왔다. 때문에 우리 한국선교는 미전도 종족 리스트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해당종족으로의 정탐여행을 위하여 현장선교사와의 연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27) <http://www.upma21.com> (2012년 6월 27일)

선교사의 현황 파악이 필요했다. 한국선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공감대 조성은 결국 2000년도에 대대적으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KWMA와 UPMA는 광범위한 리서치 조사 실시함)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선교는 지역교회(교단 포함), 선교단체, 선교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선교는 10/40창문(Window)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과 관련하여 보다 강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것은 곧 전략적인 선교,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과 전방개척선교, 남은과업 완수운동 : FTT(Finishing The Task Movement)등 주요한 이슈들이 제기되어 실행되어지게 되었다.<sup>28)</sup>

현재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각 선교단체는 YM, 프론티어즈, 인터콥, GO, 컴미션 등과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같은 선교협의체 및 미전도 종족 선교연합체이다.

## 2. 20여 년간의 한국에서의 미전도 종족 선교활동 평가<sup>29)</sup>

### (1)긍정적인 측면

#### ① 대규모 동원운동으로 시작,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확산된 점

한국에서의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은 서구와 비교해서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확산이 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AAP, GCOWE '95대회 그리고 '선교한국' 을 통해 주로 소개가 되었는데, 특별히 선교한국이 이 부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선교한국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매 2년마다 열리는 선교한국 대회와 또한 봄, 가을로 매년 각 지역교회에서 실시되는 관점훈련(Perspectives)을 통해 남은 과업으로서 미전도 종족과 전방개척선교를 확산시켜왔다. 이로 인해 각 지역교회에서는 선교한국을 경험한 세대들이 전도사, 혹은 목회자, 선교위원회 지도자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더 통합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을 구비하고 선교의 방향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8) <http://www.upma21.com> (2012년 6월 27일)

29) <http://www.upma21.com> (2012년 6월 27일) :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가 종합적으로 리서치하고 평가한 정보자료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다.

## ② 선교훈련 특성화 및 이에 따른 영향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게 초점을 둔 크림(KRIM)의 ‘캠프여호수아’ 훈련과 UPMA의 ‘선교정탐’ 훈련은 기존의 선교훈련과 차별화되었다. 그 핵심내용은 선교지에서 미전도 종족 집단 발견, 이들을 위한 기독교적 접근 방법 모색, 해당집단 내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교회개척운동이었다. 따라서 훈련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안목과 스킬(Skill), 지역교회를 위한 동원자료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교회들은 선교사의 기도편지 외에 실제 현지 미전도 종족의 자료(보고서, 사진, 동영상, 의복)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한국교회 선교전략 업그레이드, 리서치 관점과 연구 틀 제공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한국선교의 또 하나의 기여는 바로 복음을 들어야하는 대상 즉 수용자에 대한 리서치(Research)의 중요성을 한국교회에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종족에 대한 종족 프로파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발견하기, 도시와 종족에 대한 상황적, 기독교적, 문화적, 영적 리서치, 도시와 원거주지 연계전략 안목 제공 등이다. 이와 같은 리서치 안목은 각 선교단체와 교단의 훈련에도 반영되면서 지역연구 혹은 선교지 리서치 방법으로 제공되는 상승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미전도 종족/개척선교 초점의 신생 선교단체 창출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이 방향에 주력하는 새로운 선교단체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 SIM 국제선교회(1997년), MVP(1999년 창립), GO선교회(2002년 창립), 컴미션(2003년 창립), 한국 프론티어즈 국제선교회(2004년 창립), 인사이더스(2005년)등 이다. 이 단체들은 무슬림 전문 단체에서부터 지역적으로는 동남아 미전도 종족과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선교를 동원하고 있다. 이외 기존 선교단체 중 YM과 인터콥은 미전도 종족과 전방개척을 지향하는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 (2) 문제점의 측면

### ① 저조한 미전도 종족 입양

GCOWE '95대회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2,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2000년까지

입양할 것을 공동 결의하였다. 당시 여호수아프로젝트 2000의 우선 입양종족으로 1,685개 종족이 제시되었다. 이에 합동측 교단은 10년간 500개 종족, 통합측은 550개 종족 입양을 표명했으며, 다음해 1996년에는 미주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300개 종족 입양을 결의했다. 당시 AAP운동본부(2000년 UPMA로 개명)는 우선 입양종족 200족을 선정하여 기도지를 발행했다. 이런 고무적인 분위기에 불구하고 후의 입양 결과를 보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 ② 미전도 종족 선교를 표방하는 대다수 선교단체들의 허와 실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해외선교단체마다 미전도 종족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더욱 보편화 된다. 이는 각 단체의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혹자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표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진 선교회로 보일 염려가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선교회의 경우,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반응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어느 단체는 긍정적으로 미전도 종족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으며, 다른 단체는 기존의 사역 위에 다시 하나의 사역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KWMA의 한국선교사 현황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국선교사 대부분의 선교사역이 공식적으로 허락된 국가에서 교회개척이나 지도자훈련, 신학교사역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교단체들이 국내교회를 동원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브랜드처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실제화 되지는 못했다.

## ③ 한국선교사들의 현장과의 괴리 현상 발생

처음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만 해도, 아니 90년대 중후반과 실제 2000년이 될 때까지도 현장에 나가있는 한국 선교사들 대부분은 미전도 종족 선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들에게 미전도 종족은 소규모의 부족선교나 성경번역이 필요한 종족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수준이었다. 이 선교사들이 훈련받을 때 미전도 종족 강의나 전략적 선교란 주제는 거의 부재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에 나간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0년 이후에는 10/40창문(Window)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도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로 국내교회와 선교계 동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파송된 현장선교사들을 위한 훈련과 동원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 선교사들을 위한 방문훈련과 이들을 통한 주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입양전략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되어진다.

#### ④ 실제 사역현장에서의 모델 발굴 미약

은누리교회, 사랑의교회를 포함한 몇몇 입양교회들은 입양 후 사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종족을 책임지고 선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보기도 운동과 지속적 현장방문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강한 성벽처럼 여겨지던 입양종족 지역에 현지인교회가 개척되고 사역이 진전되는 사례가 생겨났다. 또한 중소형 교회라도 신림교회처럼 담임목회자부터 입양에 동원되어 매진하고 해당 종족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 선교하고 있는 경우 역시 국내와 현지에서 지속적인 사역들의 진전과 열매가 맺히고 있어 추후 모델 사례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외 대부분은 아직 한국교회에 사역 모델로 소개할 만한 사례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 3. 과제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전개된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평가해 보았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의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최우선 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 (1) 지속적인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과 입양운동 활성화 방안

한국에서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지속적인 운동성을 제고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아직도 많은 지역교회, 신학교, 그리고 교단선교부도 이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회에서의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입양후의 사역관리의 부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교회 현실에 맞는 컨설팅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교회들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교량 역할들도 강화되어야 한다.

#### (2) 선교현장 사역 및 사역도구 개발

10/40창문 지역의 선교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과 사역에 필요한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주로 한국교회에 10/40창문(Window) 지역의 미전도 종족

30) <http://www.upma21.com> (2012년 6월 27일) :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가 분석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을 알리는 종족프로파일 수준의 정보와 자료, 세계 미전도 종족 지도 등의 자료를 구축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역이 실제화 되어서 현지인 토착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역 및 도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성경 연구, 재생산적 교회개척을 이루기 위한 현지인전도, 양육, 재생산 방법 및 훈련 등이다.

### **(3)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의 협력 강화**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교회들이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선교 할 수 있도록 선교단체의 전문성의 도움과 지역교회는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긴밀한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서로 사역을 연계하는 방법들이 활성화 되어져야 한다.

### **(4) 차세대 다양한 선교인재 개발 및 다양한 현장 사역자 양성이 관건**

앞으로 한국선교가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적합한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사역자들을 양성해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권역별 연구전문가, 비즈니스맨, 캠퍼스 사역자, 문화사역자 등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그 지역에 적합한 선교훈련에 관한 방법도 개발되어야만 한다.

### **(5) 선교사 케어 및 위기관리**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을 사역하는 한국선교사들에 대한 선교사 케어(care) 및 위기관리는 한국선교의 협력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4. 전망 및 제안**

앞으로 한국에서 10/40창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선교가 수행해온 미전도 종족 선교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UPMA의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 되어지는 몇 가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대신하려 한다.

### **(1) 한국형 미전도종족 운동의 모델로 CAS운동 채택**

CAS는 2003년 UPMA 10주년 기념 대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지역분담/도시선교(Comity/City)—종족입양(Adoption)—사역의특성화(Specialization)를 의미한다. 이는 UPMA가 93년부터 종족입양운동본부로 출발하여 미전도 종족 운동을 섬겨오면서 입양에 대한 오해, 한국선교사의 전략적 선교 등을 고민하면서 사역대상과 지역, 사역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시스템운동으로 종족입양 보다 발전된 개념이다.

이 운동은 현장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교회를 동원할 때도 전방개척지역과 그 지역의 종족, 그리고 필요로 되는 사역 등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2) 12개 전방개척지역권과 CAS 의 연계**

12개 전방개척지역권은 한국선교사 현황조사에 근거하여 10/40창문(Window) 개념을 한국형으로 변형시켜서 분류한 것이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중국내지권 (2) 중국변방권 (3) 서남아무슬림권(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무슬림)(4) 힌두권(인도, 네팔, 부탄)(5) 동남아무슬림권(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무슬림)(6) 인도차이나권(소승불교권) (7) 중앙아시아권(8) 카스피해권(9) 페르시아권 (10) 아라비아권 (11) 레반트권 (12) 북아프리카권(사하라 이북)이다. 이러한 12개 권역권과 국가, 지역, 종족, 사역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역이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한국선교의 전략화에 공동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3) 전문인 선교사 양성과 더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교현장과 연결**

10/40창문 지역에 파송될 전문인 선교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자수가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 안에는 10/40창문(Window) 지역 안의 미전도 종족들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들을 한국선교는 주목해야 한다. 이유는 향후 미전도 종족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접촉이 불가능할 때에 이들을 통해 열린 창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부터 해당종족으로 정하고 목표로 삼아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다양한 연합과 네트워크의 장 형성**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은 어느 한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역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현장선교사 등의 한국선교의 주체들

간에 다양한 연합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대상 종족이나 혹은 대상 지역, 공동 사역을 위한 연합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한국선교는 이 지역을 함께 섬기며 실천해 갈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해서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고 전략들을 개발해서 이를 다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입양교회네트워크, 미전도 종족 선교연구 네트워크, 전방개척선교네트워크, 비즈니스선교네트워크, 지역개발선교네트워크 등이다.

미래에, 10/40창문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 안에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현지인 교회들이 세워지므로 “모든 족속에게 천국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남은과업 완수가 21세기의 예성교단과 한국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

## V. 나가는 말

10/40창문 지역에는 기독교에 적대적인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의 토착 종교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곳은 공산주의의 정치체제와 종족간의 전쟁이나 종교전쟁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생존하고 있다. 전 세계의 극빈자 중 80%가 이곳에 살고 있으며, 가장 불우하고 학대받는 아이들, 그리고 세계 문맹인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산다. 이러한 10/40창문 지역의 선교지 상황에 현재 미전도 종족 6,648개 중에서 90%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21세기의 한국선교에게 주어진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현대 선교의 남은과업인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선교가 이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도전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성취해야만 하는 연대감의 과제이기도 하다. 즉, 10/40창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지역교회(교단선교부), 신학교,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이 지역의 미전도 종족선교는 하나님께서 21세기 한국선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인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이루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목표를 가지고 선교동원을 가속화하며 성도들이 이 지역 선교에 대한 비전과 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선교역량을 깨우는데 주력해야만 한다. 또한 신학교에서는 신학도들이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21세기의 선교적 과제이자, ‘남은과업 완수’라는 시대적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받도록 해야 한다. 선

교단체와 각 교단선교부에서는 이제는 지난 20여 년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가지고 실제적인 미전도 종족 선교 활성화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선교현장에 대한 전략개발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래서 21세기의 한국선교는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에 전력투구하며 한국교회 전 선교 역량을 결집해서 이일을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선교의 가장 위대한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세계선교의 남은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과업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선교와 예성교단은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10/40창문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파송함으로써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는 세기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21세기는 한국선교와 예성교단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추진력을 가지고 이 과업이 완수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10/40창문 지역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21세기의 남은과업은 완수되어지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은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태복음 24 : 14 -

## 참고문헌(Bibliography)

- 강승삼 편집. 『한국세계선교 행정과정책 자료집』.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4.
- \_\_\_\_\_. 『한국선교의 미래와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6.
- 김성태. 『세계 선교 전략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문상철. 안점식 편집. 『현대 선교학의 동향』.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7.
-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4.
- 이현모. 『선교학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출판부, 2000.
-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 전략』. 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5.
- Garrison, David. *The Nonresidential Missionary*. 김창영. 조은화 옮김. 『비거주 선교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Mandryk, Jason. *Operation World*. 조이선교회 역. 『세계기도정보』. 서울 : 조이선교회출판부, 2011.
- Tetsunao Yamamori. *Penetrating Missions' Final Frontier*. 이현모 옮김. 『미전도 종족 이렇게 접근하라』.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4.
- Winter, Ralph D. & Hawthorne, Steven C. *Missio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 예수전도단, 2000.
- Barrett, David B. *World-Class Cities and World Evangelization*. Birmingham : New York, 1986.
- Barrett, David B. and Reapsome, Janes W. *Seven Hundred Plans to Evangelize the World*. Birmingham : New Hope, 1989.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 Orbis Books, 1991.
- Dayton, Edward R. and Fraser, David A.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Grand Rapids : Eerdmans, 1980.
- Hesselgrave, David J.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 A Guide for Home and Foreign Mission*. Grand Rapids : Baker, 1987.
- Kane, J. Herbert.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 Baker, 1989.
- Montgomery Jim . *DWAN 2000 : 7 Million Church to go*. Pasadena : William Carey Library, 1989.
- Winter, Ralph D. and Steven Hawthorne. e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Pasadena : William Carey Library, 1981.